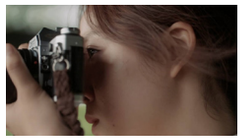
11월 수요단편극장 – 김보라 배우 기획전: 투명해서 가장 깊은 얼굴

일시 11월 25일(수) 오후 7시 30분 | **공동주최** (주)인디스토리
상영 후 시네토크 김보라 배우, 배준원 감독



Rewind

2019 | 13min | 한국 | Color | DCP | 15세 관람가
연출 | 황태성
출연 | 김보라, 윤혜리, 김진구

소중했던 사람의 유품, 필름 카메라를 팔아넘기는 희원의 하루.



침묵 Silence

2022 | 39min | 한국 | Color | DCP | 15세 관람가
연출 | 배준원
출연 | 김보라, 신세휘, 송아경

수녀원에서 자랐지만 수녀가 되고 싶지 않은 이월은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한다. 한편 이월은 자신처럼 마을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소녀 정연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낀다.



몬사로 Monsa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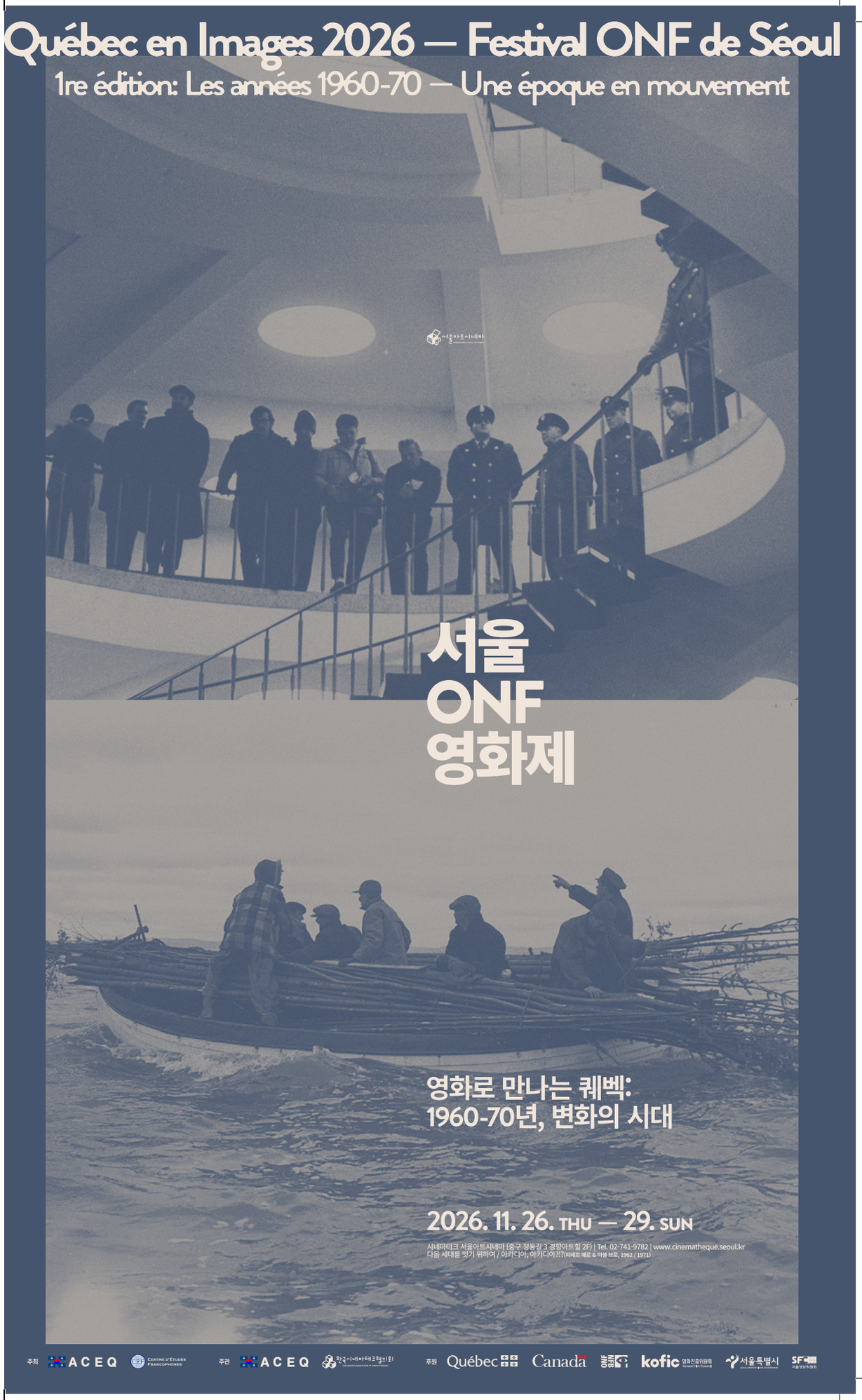
2025 | 29min | 한국 | Color | DCP | 15세 관람가
연출 | 배준원
출연 | 김보라, 김규리, 김보림

작은 마을에 사는 유진은 세상을 떠난 정안을 그리워한다. 그런데 바닷가에 인어가 나타난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11. 24. Tue	11. 25. Wed	11. 26. Thu	11. 27. Fri	11. 28. Sat	11. 29. Sun
				13:00 **레슬링/ 우리말, 쉬악** Wrestling/ In Praise of Chiac **54min**	**13:00** **설피를 신은 사람들/ 9월 5일 생앙리에서** The Snowshoers/ September Five at Saint-Henri **57min**
16:00 **눈 둘 데가 없네** Nowhere to Lay My Eyes **72min**	**15:00** **눈 둘 데가 없네** Nowhere to Lay My Eyes **72min**	**14:30**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하여** For Those Who Will Follow **105min**	**15:00** **어쩌면 모리스 리샤르/ 그 겨울의 유니폼** Perhaps Maurice Richard/ The Sweater **76min**	**14:30** **공적 명령** Orderers **108min**	**14:30** **상식 없는 나라!** Wake Up, Mes Bons Amis! **117min**
18:00 **첩첩산중/ 리스트** Lost in the Mountains/ LIST **61min** ⓔ	**17:10** **린 허쉬만 리슨** **에이다 러브레이스** Conceiving Ada **84min**	**17:00** **아카디아, 아카디아?!?** L'Acadie, l'Acadie?!? **117min**	**17:00** **공적 명령** Orderers **108min**	**17:00** **아카디아, 아카디아?!?** L'Acadie, l'Acadie?!? **117min**	**17:10** **어쩌면 모리스 리샤르/ 그 겨울의 유니폼** Perhaps Maurice Richard/ The Sweater **76min** **시네토크_박희태**
19:30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 Yourself and Yours **86min** ⓔ **시네토크_김나영**	**19:30** **수요단편극장** **Rewind/ 침묵/ 몬사로** **83min** **시네토크_김보라, 배준원**	**19:30** **상식 없는 나라!** Wake Up, Mes Bons Amis! **117min**	**19:30** **개막식** **설피를 신은 사람들/ 9월 5일 생앙리에서** The Snowshoers/ September Five at Saint-Henri **57min**	**19:30**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하여** For Those Who Will Follow **105min** **시네토크_김성욱**	**20:00** **레슬링/ 우리말, 쉬악** Wrestling/ In Praise of Chiac **54min**
12. 1. Tue	**12. 2. Wed**				
Coming Soon **"기진우 특별전"**	**Coming Soon** **"2026 스페인영화제: 호세 루이스 게린 회고전"**				

안내

- 관람료: 일반 9,000원, 청소년/경로/장애인 6,000원, 단체(20명 이상) 7,000원, 관객회원 5,000원
- 인터넷 예매는 서울아트시네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11월 14일(토)부터 "서울 ONF 영화제" 전체 상영작의 티켓을 매표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매표소는 첫 상영 한 시간 전부터 운영합니다.
- 카드사 및 통신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환 및 환불은 상영시간 20분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시네토크 등 특별 행사가 있는 상영은 온라인에서 당일 취소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 영화가 시작하고 15분이 지나면 상영관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상영하는 모든 외국어 영화에는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 ⓔ = Screening with English Subtitle



서울 ONF 영화제
영화로 만나는 퀘벡: 1960-70년, 변화의 시대

일시 | 2026년 11월 26일(목) – 29일(일)
주최 | 한국퀘벡학회, 성균관대 프랑스어권문화융합연구소
주관 | 한국퀘벡학회,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후원 | 주한퀘벡정부대표부, 주한캐나다대사관,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ONF),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시, 서울영상위원회
장소 |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아트힐 2층)
문의 | 02-741-9782 / www.cinematheque.seoul.kr
서울아트시네마 온라인 예매 QR코드

한국퀘벡학회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그리고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ONF), 주한퀘벡정부대표부, 주한캐나다대사관과의 협력을 통해 2026년 11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서울 ONF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북미를 대표하는 프랑스어권 사회인 퀘벡의 역사와 사회,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퀘벡학회는 그동안 세 권의 저서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와 문화 활동을 통해 한국에 퀘벡을 소개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영화제는 영화라는 창을 통해 한국 관객들에게 퀘벡의 현대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소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1939년 설립된 ONF(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 Office national du film du Canada /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NFB))는 세계 다큐멘터리 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온 캐나다의 공공 영화제작기관입니다. 특히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 ONF의 프랑스어권 영화인들은 새로운 촬영 방식과 영화적 언어를 실험하며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의 삶으로 직접 들어가는 다이렉트 시네마를 비롯한 이들의 영화적 실험은 당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던 퀘벡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설피를 신은 사람들>, <레슬링>,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하여>, <9월 5일 생 앙리에서>, <우리 말, 쉬악>, <공적 명령>, <아카디아, 아카디아?!?>, <상식 없는 나라! - 깨어나, 친구들이여!>, <어쩌면 모리스 리샤르>, <그 겨울의 유니폼> 등 ONF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10편을 소개합니다.

대부분 1960~70년대에 제작된 이 작품들은 ‘조용한 혁명’을 전후하여 빠르게 변화하던 퀘벡 사회를 다양한 시선으로 포착합니다. 도시와 농촌, 노동과 일상, 언어와 공동체, 정치와 민족 정체성, 그리고 아이스하키와 같은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영화 속에는 현대 퀘벡을 만들어 온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이 작품들은 단순한 시대의 기록을 넘어 다큐멘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록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영화 형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련되는 이번 ONF 영화제를 통해 한국 관객들이 퀘벡 영화의 문화적·예술적 저력을 발견하고, 북미 캐나다의 프랑스어권 지역인 퀘벡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가 한국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과 퀘벡 사이의 지속적인 영화·문화 교류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하여 Pour la suite du monde / For Those Who Will Follow
1962 | 105min | 캐나다 | B&W | DCP | 15세 관람가
연출 | 피에르 페로 Pierre Perrault, 미셸 브로 Michel Brault

퀘벡주에 흐르는 생로랑강에 위치한 작은 섬. 섬의 주민들은 자연과 공존하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지켜왔지만, 한편으로는 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당시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이 ‘시네마 베리테’ 또는 ‘다이렉트 시네마’를 두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963년 칸영화제 경쟁부문 상영, 1964년 캐나다영화상 올해의 영화 선정.



상식 없는 나라! - 깨어나, 친구들이여! Un pays sans bon sens! / Wake Up, Mes Bons Amis!
1970 | 117min | 캐나다 | B&W | DCP | 15세 관람가
연출 | 피에르 페로 Pierre Perrault

피에르 페로는 프랑스계 캐나다인, 또는 ‘퀘벡인 Québécois’이라는 정체성을 질문한다. 캐나다에 살면서 복수(複數)의 정체성을 갖는 건 어떤 의미인지, 성숙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일상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이 고민은 자연스럽게 국가는 무엇인가 라는 까다로운 질문으로 이어진다. 당시 퀘벡 시민들의 구체적인 일상을 생생하게 기록한 작품.



아카디아, 아카디아?!? L’Acadie, l’Acadie?!?
1971 | 117min | 캐나다 | B&W | DCP | 15세 관람가
연출 | 피에르 페로 Pierre Perrault, 미셸 브로 Michel Brault

17세기, 프랑스에서 캐나다로 처음 이주해 ‘아카디아’의 정체성을 만든 이들과 후손들은 이후 외교 문제로 18세기에 강제 추방을 당했고, 1867년에는 공식적으로 캐나다 국민이 되었다. 하지만 캐나다에는 지금도 ‘아카디언’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감독은 1968년 캐나다 뉴브런즈윅에서 열린 대학생들의 연좌 농성을 기록한다. 새로움을 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 중에는 아카디언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알리려는 외침도 있다.



공적 명령 Les Ordres / Orderers
1974 | 108min | 캐나다 | B&W | DCP | 15세 관람가
연출 | 미셸 브로 Michel Brault

1963년에 결성된 퀘벡해방전선(Front de libération du Québec)은 퀘벡의 독립을 주장하며 폭파, 납치 등 테러를 시도한 정치 조직이다. 1970년 10월, 캐나다 정부는 퀘벡해방전선과의 전면전을 결정하고, 전시조치법을 발동해 약 500명의 시민을 체포한다. 감독은 당시 체포된 다섯 명의 시민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픽션과 논픽션이 혼재된 방식으로 들려준다. 1975년 칸영화제 감독상 수상, 1975년 캐나다영화상 올해의 영화 선정.

단편 1



설피를 신은 사람들 Les Raquetteurs / The Snowshoers
1958 | 14min | 캐나다 | B&W | DCP | 15세 관람가
연출 | 미셸 브로 Michel Brault, 질 그루 Gilles Groulx

퀘벡에서 즐거운 겨울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설피 달리기 대회’다.



9월 5일 생앙리에서 À Saint-Henri le cinq septembre / September Five at Saint-Henri
1962 | 41min | 캐나다 | B&W | DCP | 15세 관람가
연출 | 위베르 아캥 Hubert Aquin

몬트리올의 생앙리는 프랑스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던 곳으로, 특히 가죽 가공으로 유명했다. 지금은 산업 구조가 바뀌며 인구가 감소하는 중이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생기 넘친다.

단편 2



레슬링 La Lutte / Wrestling
1961 | 27min | 캐나다 | B&W | DCP | 15세 관람가
연출 | 미셸 브로 Michel Brault, 마르셀 카리에르 Marcel Carrière, 클로드 푸르니에 Claude Fournier, 클로드 쥐트라 Claude Jutra

프로레슬링의 세계를 생생하게 기록한 다큐멘터리. 근육질의 남성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거친 기술을 주고받는다. 감독들은 경기장을 가득 채운 남녀노소의 집중한 표정 역시 놓치지 않고 기록한다.



우리 말, 쉬악 Éloge du Chiac / In Praise of Chiac
1969 | 27min | 캐나다 | B&W | DCP | 15세 관람가
연출 | 미셸 브로 Michel Brault

모두가 영어를 쓰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을 그린 다큐멘터리. 쉬악(Chiac)은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프랑스어와 영어가 섞인 방언을 일컫는 말이다.

단편 3



어쩌면 모리스 리샤르 Peut-être Maurice Richard / Perhaps Maurice Richard
1971 | 66min | 캐나다 | B&W | DCP | 15세 관람가
연출 | 질 가스콩 Gilles Gascon

모리스 리샤르(1921~2000)는 NHL에서 18년간 활약한 전설적인 하키 선수다. 퀘벡에서 태어나 몬트리올 연고팀에서 활동한 그는 퀘벡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영화는 모리스 리샤르의 활약은 물론, 프렌치-캐나다 정체성을 향한 차별 때문에 발생한 ‘모리스 폭동’(1955)까지 다룬다.



그 겨울의 유니폼 Le Chandail / The Sweater
1980 | 10min | 캐나다 | Color | DCP | 15세 관람가
연출 | 쉘던 코헨 Sheldon Cohen

하키 스타를 동경하는 한 소년이 실수로 다른 팀의 유니폼을 주문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퀘벡 사람들의 하키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스웨터”란 제목으로도 알려진 단편 애니메이션 . 1982년 영국 아카데미시상식 최우수 단편애니메이션 수상.

개막식 **일시** 11월 27일(금) 오후 7시 30분
개막작 <9월 5일 생앙리에서> + <설피를 신은 사람들>

시네토크 1. **일시** 11월 28일(토) 오후 7시 30분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하여> 상영 후
진행 김성욱 프로그램디렉터

2. **일시** 11월 29일(일) 오후 5시 10분 <어쩌면 모리스 리샤르> + <그 겨울의 유니폼> 상영 후
진행 박희태 교수(성균관대 프랑스어문학과)